



알프스 스키장 언제 개장하나

왼쪽 사진은 고성군과 (주)알프스 세브리조트, (주)펜타곤씨티, (주)DKSP(동국솔라파워)가 지난 2010년 4월 2일 군청 상황실에서 황종국 군수와 방광옥 알프스세브리조트 회장(왼쪽 첫 번째), 김병태 부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덕균 DKSP 회장(맨 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알프스스키장을 2010년 시즌 개장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조인식을 갖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지난 1일 눈이 균게 덮힌 알프스 스키장의 모습. <관련기사 3면>

최광호 기자

진출입로 확보없이 골재 불법 반출

A콘크리트산업, 강릉국도 시정명령도 무시... 업체 관계자 “잘못 시인, 중단하겠다”

국도 46호선 인접 간성읍 교동리

고성지역 A콘크리트산업이 지난해 8월 국도 46호선과 인접한 간성읍 교동리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고는, 규정에 따라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않고 임의로 길을 만들어 불법으로 골재를 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고성군과 강릉국도유지관리사무소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A콘크리트산업은 이 지역에서 2011년 8월 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4,284㎡의 허가 면적에서 10만1천㎡의 골재채취를 허가받았다. 그러나 가로수 이식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지 못해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진출입로 도로점용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이 완료된 뒤에 골재를 반출해야 하지만,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수개월 동안 불법으로 골재를 반출해 왔다. 또 이 과정에서 골재를 실

은 대형 덤프트럭이 신호등이나 과감차선도 없이 국도 46호선을 드나들면서 대형 교통사고의 우려까지 발생했다.

급기야 강릉국도는 지난해 10월 이 업체에 시정명령 공문을 보내 “해당 점용지의 공사완료 확인을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골재채취 및 반출을 하고 있어 사고발생이 우려된다”며 “도로법 제84조에 의해 현재진행중인 작업을 중단하고, 2011년 12월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해 준공확인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강릉국도는 또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허가조건 위반으로 직권에 의해 (도로점용)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같은 사실을 고성군 골재채취 허가 담당부서에도 보내 골재반출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A콘크리트산업은 이같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법으로 골재를 반출해왔으며, 고성군도 반출을 적극 막지 않고 교통안내 요원 1명을 배치하도록 주문하는 선에서 마무리해 사실상 불법 반출을 묵인해왔다.

이에 대해 A콘크리트 관계자는 지난 7일 “진출입로가 준공될 때까지는 나가자 말아야 하는데 욕심만 차리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진출입로 문제가 완료될 때까지는 골재를 내보내지 않겠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위치에 진출입로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수량이 오래된 가로수가 많아 안 된다고 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새로운 진출입로를 만드는 설계변경을 했다”며 “일주일 후 새로운 진출입로가 확보된



고성지역 A콘크리트산업이 수개월째 적법한 진출입로 공사를 하지 않고 임의로 길을 만든 뒤 골재를 반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골재채취 현장 모습.

후에 골재를 반출하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고성군이 처음부터 진출입로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골재채취 허가를 내 준 것이 문제며, 허가과정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강릉국도에서 도로점용공사가 안됐으므로 골재반출을 보류하라는 공문을 받고도 반출을 묵인해 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지난 8일 “허가 당시 다른 부서에

서 근무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군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안다”며 “강릉국도로부터 골재채취를 보류하도록 하라는 공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 “진출입로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우선 안전요원을 배치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